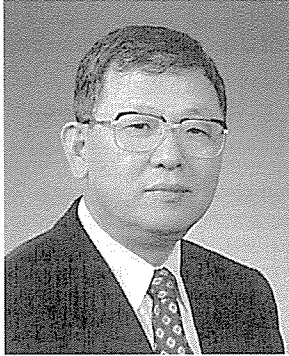


제35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과학상 수상자

한국과학기술원 최덕인 명예교수 플라즈마 물리학 국내 도입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이번 과학상 수상은 저 개인보다는 열심히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물리학자, 특히 플라즈마 물리분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께 대한 전체적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즈마 물리학을 국내에 도입하고 그 정착에 크게 기여한 최덕인 KAIST 명예교수의 수상소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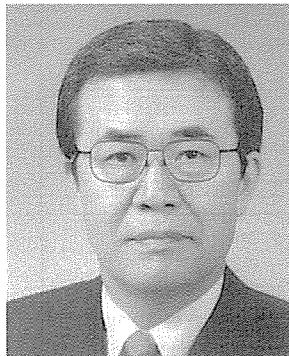
최교수는 지난 80년대 국내에서는 그 단어조차 생소했던 ‘플라즈마’를 학계에 소개함과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플라즈마 난류이론을 정립함

으로써 국내 학계의 이론과 실험적 연구결과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소형 토카막 장치의 설치 및 정상 가동을 달성하고 차세대 초전도 토카막 장치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미래의 에너지원인 핵융합로 개발 연구에 공헌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착수에도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난 1981년 KAIST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부터 자연과학부 학부장과 KAIST부원장 및 원장 등 보직을 통하여 과학기술원 학내

행정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최교수는 2백43건의 학술발표와 1백10여편의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 2권의 저서를 발간했고 30여년 동안 박사 27명과 석사 34명을 배출하는 등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다. “제 실험실 졸업생들이 세계 각지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후학 교육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플라즈마 물리 발전에 도움이 될 국제공동연구 추진과 함께 국제적 가교를 놓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최수상자는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제35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기술상 수상

(주)LG화학 여종기 사장 국내 최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개발



제35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 기술상은 여종기박사((주)LG화학 사장)가 그 영예를 안았다.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

업 직후 KIST에서 연구자로 첫 발을 내딛었고 1977년 도미, 폴리머 연구에 세계적 권위가 있는 Lehigh대학에서 Sperling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으며 수편의 공동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귀국하여 당시 불모나 다름없는 기업 R&D분야에서 본격적인 연구리더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하였다. “R&D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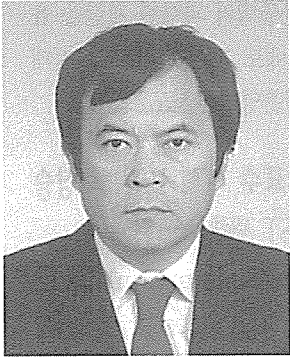
R&D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수상으로 기쁨과 함께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수상을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세계 일류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요청으로 알고 산업기술 전반에 있어서 세계 일류 리더그룹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 힘을 쏟으려 합니다”라고 여박사는 말한다. 지난 81년 당시 (주)럭키 중앙연구소에 고분자연구부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한 여박사는 22년여 동안 벼 제초제와 퀴놀론계 항생제, 리튬이온전지 등의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러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97, '99년 최우수

IR52 장영실상과 제1회 산업기술혁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내 최초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개발할 때와 리튬 2차전지를 개발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로서는 모두 새로운 방법의 기술개발 시도였으나 결국 기술개발의 목적이나 당시의 사업환경, 주어진 자원 등에 따라 융통성 있고 도전적인 과제 운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된 것 같습니다”. 여종기박사는 이후에도 꾸준한 연구 끝에 현재 (주)LG화학기술연구원 원장과 회사 전체 R&D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최고기술경영자(CTO)로 활동하고 있다.

영광의 열곡

제35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기능상 수상자

포항제철광양제철소 최병만 기성보 30년간 제강기술 20여건 개발



2002년도 대한민국과학기술상 기능상의 영예는 국내 제강산업부문 전반에 걸쳐 조업 기술 향상과 설비 안정화, 품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 최병만 기성보((주)포항제철 광양제철소 제강부)에게 돌아갔다.

지난 64년 부산 한창신철(주)에서 처음으로 철강산업과 인연을 맺게 된 최 기성보는 73년 (주)포항종합제철 제강부에 입사하여 수 차례의 연수활동과 함께 연주주임을 거쳐 현재 광양제철소 제강부 연주분야 기성보와 제안·자주 관리 심의위원으로 일하고 있

는 전문 기능인이다.

지난 30여년간 최 기성보가 개발한 제강관련기술은 총 20여건이 넘는다. 우선 수상자는 용강을 주형 내에 공급하여 주편을 생성할 때 용강의 수축을 측정할 수 있는 '주형동판 기울기 측정장치'를 개발하여 연주조업의 안정화를 이루었고 텀디쉬의 열간재 사용을 가능토록 보조홀을 만들으로써 용강공급의 2차적인 공급 요리를 형성하고 열간상태에서 텀디쉬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장치를 고안한 바 있다.

또한 자연개공 불가시 역화를 방지할 수 있는 '레이들 노즐 개공장치'를 개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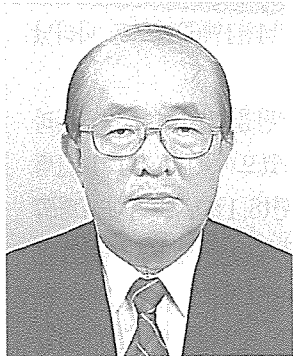
용강 유출시 폭발 잠재 위험이 있는 설비를 크게 개선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최병만 기성보는 이미 3건의 국내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굉음소리와 함께 피땀 흘리는 현장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기능인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되어 정말 기쁘며 오늘의 영광을 저 스스로 이루어냈다기 보다는 동료들과 상사, 후배사원들의 도움으로 이를 수 있었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더 많은 노력과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소박하지만 따스한 소감을 밝혔다.

영광의 열곡

제35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진흥상 수상자

한서대 강신구 객원교수 과학기술 보도 활성화에 기여



"뚜렷한 공헌 없이 큰 상을 타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과학진흥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는 격려의 뜻으

로 알겠습니다." 대한민국과학기술상 진흥상의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강신구(한서대 객원교수) 수상자는 소박히 답했다.

지난 67년 강교수는 과학전문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 33년간 경향신문, 문화일보에 재직하면서 한국과학언론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데 공헌을 하였으며 특히 한국언론사상 처음으로 과학전문 기자로서 과학보도의 활성화와

과학전문 기자의 위상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과학보도의 사회학'에 주력, 수많은 국내외 특종을 생산하여 일반인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진작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문화일보 편집국장 재직시에는 미 뉴욕타임지의 한국판 '사이언스 타임즈'를 제작하고 1면에 과학토픽 박스물을 도입하여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와 같이 활발한 과학보도 활동으로 이미 강 교수는 두 차례의 대통령표창과 국민포장, 우수보도상, 관훈언론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과학특종으로는 '북한 플루토늄생산(1990)', '중

수로용 핵연료 국산화(1983)' 등이 있으며 특히 제7회 관훈언론상을 수상케 한 '상수도 중금속 오염(1990)' 기사는 국내 상수도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최초의 보도로서 90년도 우리나라 상수도 수질개선운동의 촉발제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 과학기술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에 "이공계 외면 현상은 21세기 한국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이다.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과학자가 사회 중심이 되도록 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국가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교수는 말한다. ①7